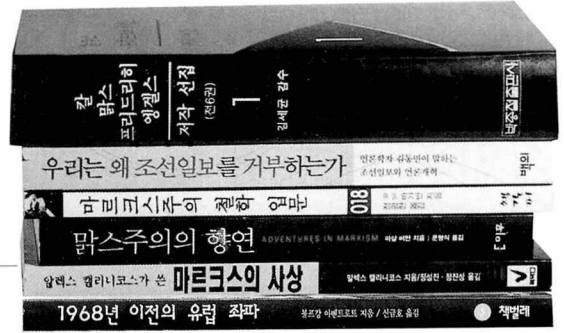


# 마르크스주의의 복권과 부활 꿈꾼다

1980년대 사회과학 출판의 맥 잇는 출판사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후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는 각종 '포스트' 이론들이 대거 등장했다. 사회과학 출판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발 빠르게 종목을 바꾼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마르크스주의의 맥을 잇는 출판사도 있었다.

## 왜곡된 마르크스주의 복원에 주력해

박종철출판사는 1990년 박종철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과학 출판에 뛰어들었다.

안효상 대표는 "1980년대, 사회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마르크스-엥겔스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곧 연구자 중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마르크스 사상의 전모를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다"며 설립 당시를 회상한다.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집(전6권)>은 이런 박종철출판사의 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표작이다. 그후 출간한 10여종의 책은 196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갱신하려는 노력의 성과물들이다. 안대표는 앞으로 "마르크스-엥겔스 이후의 주요 사상가들을 소개하고, 1960년대 사회운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1988년 설립 후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백의(대표 유환옥)의 출판원칙은 "이념적으로 금기시하는 책들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에 출판한 북한판 <자본론>을 비롯한 북한관련 책들은 이런 출판원칙에 부합한 것이다. 백의는 그후 주로 비판 사회과학 분야의 텍스트 해설서, 연구서를 소개해왔다. 편집부 신희영씨는 앞으로 "마르크스주의 계열 학자들의 원전을 발굴해 소개하고, 이념서는 아니지만 대안적인 메시지를 담은 대중적인 인문교양서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현대의 고전> 시리즈는 백의의 변화를 반영한 첫 결실로 현재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전3권)>이 나와 있다.

1992년 출판 등록을 마친 책갈피는 마르크스주의 출판의 지난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홍교선 대표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상을 표출하는 일에 너무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다. 하지만 가까운 눈총을 견디면서도 사회과학 출판을 업으로 삼는 건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혼자서 책갈피를 운영하는 홍대표는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1996년 출간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두차례 법정에서 섰고, 본격적으로 책을 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홍대표는 앞으로 "기존의 전통은 지키되 독자층을 넓히는 차원에서 성향은 다르지만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들을 소개할 예정이고 국내필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채기'의 신호탄으로 최근 크리스 하먼의 <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가 나왔다.

##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접근도 필요해

이후는 1998년 설립 후 올 한 해만 13종의 책을 출간했다.

이후는 출판사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80년대 이후'의 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일규 대표는 "이후의 출판이념은 한마디로 '신좌파'다. 1980년대의 이념은 그 이후 세대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중심에 접근하는 형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제 1980년대 이후 세대 속에서 저자를 발굴하고, 지금 세대들에게 발언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후는 주로 사회과학 책을 출간했지만, 최근엔 경제·경영서와 비소설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고 이후가 종합출판사를 지향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지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기존의 이미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뛰어들어야 한다. 도덕적 엄숙주의나 '질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양적으로도 풍부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막스와 책벌레는 각각 지난해 1월과 2월 사회과학 출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비롯해 모두 3종의 책을 펴낸 북막스의 김희준 대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하되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책들도 발굴해 펴낼 예정"이라고 말한다.

책벌레의 최수진 대표는 "무엇보다 사회과학 출판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대표는 또 "전반적인 출판시장 불황이 사회과학 서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가에서 도서관 납품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출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옥순기자